민주 비대위원장 9일 선출키로

박기춘 원내대표, 일정표 마련 의견수렴 착수

대선패배 책임론 싸고 막판 신경전 이어질듯

윤창중·김경재 등 '밀봉 4인방' 해임·사퇴 요구

민주통합당은 오는 9일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끝까지 당의 총의를 모아 혁신의 신호탄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2일 당직자 시무식에서도 "비대위원장 선출을 늦추는 것은 돌려막기일 뿐"이라며 '이달 초 선출'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 당의 원로인 상임고문단 오찬을 시작으로 4일 시도당위원장, 7일 전직 원내대표단, 8일 초선의원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한 뒤 9일 당무위-국회의원 연석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표를 마련했다.

고문단은 오찬에서 비대위의 역할로 차기 지도부를 세우는 전당대회 전념, 총선·대선에 대한 엄정한 평가 작업 수행을 꼽았다.

새 지도부를 빨리 선출해 쇄신을 맡겨야 한다는 '조기전대론'과 '관리형 비대위'에 방점을 둔 것으로서, 최근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는 3월 전대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문단은 박 원내대표가 사심 없이 당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토록 함으로써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또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과 수수방관한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일부 중진과 친노(친노무현) 측에서 원혜영, 비주류에서 이낙연·이종걸·이석현, 일부 초재선그룹에서 박영선 의원을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세력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때 거론됐던 박병석 국회부의장 카드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비대위에서 추진할 대선 평가가 계파 간 책임론 공방으로 비화할 수 있는데다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비대위의 역할이 커 비대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신경전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날 고문단 오찬에서는 민주당이 존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반성이 절실하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갈등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당에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금은 성찰과 혁신, 뼈아픈 반성의 시간이다.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은 최대한 삼가주기 바란다"며 해외 출장과 외유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과 관련해 '밀봉 4인방'으로 규정한 윤창중 대변인,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윤상규·하지원 청년특별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발목 잡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번 인사는 해도 너무한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물론이고 측근인 이상돈 전 비대위원장, 인명진 전 윤리위원장, 전원책 변호사도 물러나라고 한다. 잘못된 것 고쳐야 하며 국민을 이기려 하면 안 된다"고 박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임고문단과 가진 오찬에서 이부영·김상현·정동영 상임고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월 한달 '의원들 없는' 여의도 한산

주승용·임내현 의원 등 남미 출장…일부 외유성 연수도

장병완·박혜자·이낙연 의원 등은 '지역구 챙기기' 주력

국회의원 대부분이 1월 한달 동안 해외로 나가거나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여의도 국회가 한산한 모습이다.

특히 해외연수의 경우, 대선 등 선거 일정 때문에 미뤄진 출장을 올해 초로 넘겨 소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출장 목적과는 걸맞지 않은 해외지역으로 떠나면서 '외유성' 연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장윤석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여야 계수조정소위 위원 6명 등 9명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출국길에 올랐다.

이들은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라는 명목으로 1일과 2일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향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도 지난 1일 본회의 직후 두 팀으로 나뉘어 미주와 유럽으로 향했다. 금융기관 방문 및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3명도 같은 날 해외 출장 길을 떠났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신학용·김세연·박홍근·민병주 의원은 2일 유럽으로 떠났다. 이들은 8박9일 일정으로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를 둘러보고 귀국하며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최근 남미 출장을 떠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과 강석호·이윤석·임내현·안효대 의원은 오는 11일 남미로 출장 길에 오른다. 이들은 브라질에 들러 고속철도 수주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우르과이를 거친 뒤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하고 24일 귀국할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1월 중으로 해외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 초선 의원은 3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무조건 외유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해외출장은 공무 목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의원들은 지역에서 민생 활동을 하거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청취하며 1월을 보낼 계획이다.

박혜자 의원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본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지역에서 대선 패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민생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병완 의원도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을 추스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낙연·강기정·이용섭·배기운·김승남 의원 등도 서울과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대선 기간과 연말 정기국회 기간 동안 소홀히 했던 지역구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정치쇄신특위 구성 野에 제안

예산증액 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도

새누리당이 3일 민주통합당에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 제안과 예산증액 심사 속기록 의무화 등을 제안하며 정치 쇄신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차원의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해 여야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국회 쇄신특위에서 논의된 '국회의원 특권 포기 과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쇄신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가지 쇄신과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후속적인 입법화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자칫 논의결과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 정치쇄신특위를 새로 구성해 쇄신론의 불씨를 이어가고 19대 국회의 새정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쪽지예산' 비판과 관련,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의 증액심사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 계수소위가 여야 간사협의 방식으로 3조~4조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쪽지예산'이 오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증액심사 권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은 대선 후에도 지고 있다"

'국민정당 추진 네트워크' 토론회 쓴소리 봇물

"2030세대 위주 멘붕상태…치유 대책도 못내놔"

민주통합당 당직자 출신 인사와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시민캠프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당 추진 네트워크'가 대선 평가와 민주당 쇄신 작업에 나섰다.

'국민정당 추진 네트워크'가 3일 주최한 '대선평가, 민주당 혁신, 그리고 신당'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현재 민주당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집단치고는 한가하다"며 "비대위원장도 못 만드는 역량으로 집권할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의 대선패배와 관련 "전략적으로 총선과 숱한 재보선에서 쓴 단일화 전략은 식상했다"며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복지라는 이슈도 어느 순간 새누리당에 뺏겼다"고 말했다.

정당 역량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최근 몇 년간 당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보를 했느냐"며 "모바일 투표로 유권자 등록만 하면 당 대표나 대선후보를 뽑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니 당원이 뛰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소장은 "대선후보를 뽑을 때는 문호를 개방해 모바일 투표를 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와 경쟁할 때는 정당의 우위를 앞세운 것은 당 울타리를 허물자 하면서 그 울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후에도 지고 있다"며 "대선 후 2030 세대 위주로 멘붕 상태가 곳곳에서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동호 안철수 전 후보 캠프 대외협력팀장은 "민주당을 고쳐 쓰기에는 너무 고장난 부분이 많고 엔진도 낡아 다른 동력이 없다"며 "재건 동력이 없는 만큼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정당 추진 네트워크에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인 최광웅 임시대표를 비롯해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 함운경 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임채호 문재인 전 대선후보 시민캠프 4050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우여 "정부 인사에 논공행상 안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뒤엔 이른바 논공행상을 하는데, 이것을 정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다"며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국민을 위주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논공행상은 당에서 책임지고 예우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해를 맞아 박근혜 당선인께서 약속한 국민행복, 국민통합, 정치쇄신의 3대 과업을 당에서 뒷받침하고 꼭 이뤄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민생과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정치쇄신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선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을 만나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매 NPL 물건 특수 물건
▶비법 배우면서 투자
▶단독/공동투자 가능
▶1인 1물건 추천
▶임장/교육비 등등 550만원
NPL 투자
▶낙찰받을 확률 100%
▶양도세 無
▶소액투자 가능, 대출多
▶단기내 고수익 가능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ASSET KOREA since 200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 물류센터 [전북김제] ☜ 대8076㎡ ,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 공장[용전동] ☜ 대2315㎡ , 건1542㎡ 감정가 22억 최저가 14억
☞ 주유소 [나주남평] ☜ 대4428㎡ ,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 신안압해 [횟집,판매] ☜ 대4706㎡ ,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 원룸[계림동] ☜ 대333㎡ ,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 상가[신창동] ☜ 대 67㎡ ,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 공장 [나주공산] ☜ 대29710㎡ ,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 숙박시설 [치평동] ☜ 대704㎡ ,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공장 [장성동화] ☜ 대1983㎡ ,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 임야 [전주완산] ☜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5억5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3289평 ▷건물1601평 ▷감정가 52억4천 ▷최저가 36억7천
☞ 운암동 (근린시설) ☜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5천 ▷최저가 27억7천
☞ 화정동[예식장] ☜ ▷대지330평 ▷건물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1억(협의후결정) 요양병원적합
☞ 첨단 (오피스텔) ☜ ▷대지154평 ▷건물389평 ▷감정가 13억5천 ▷최저가 10억8천 수익률 최고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